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 년 5 월 15 일

CUOMO 주지사, 사기성 비고용 보험 지급에서 5,000 만 달러 이상 회수 발표

뉴욕주의 총 회수 비용은 국내 최고에 달합니다

Andrew Cuomo 주지사는 오늘 부당하게 징수된 비고용 보험금 5,120 만 달러가 뉴욕주 비고용 보험 신탁 자금에 돌려졌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연방세 환불금을 메우고자 차단된 주와 연방정부간 파트너쉽 프로그램인 Treasury Offset Program (TOP)을 통해 메워졌습니다. 뉴욕주는 부당하게 징수된 비고용 보험금을 메우기 위해 TOP 을 사용한 최초의 주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0,000 명 이상의 개인들로부터 5,120 만 달러 – 국내 최고 금액 – 를 메웠으며, 이 자금은 뉴욕의 실직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또다시 뉴욕주는 부당하게 획득된 정부 지불금을 방지하고 회수함으로서 납세자의 납세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메운 금액 모두는 이 중대한 경제 안전망이 가장 필요하며 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뉴욕의 실업자들에게 이용가능하게 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자격이 있는 뉴요커들의 자격을 훔쳐 수당을 받고 있는, 무자격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수당을 거둬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의 수금 시스템이 협력하도록 하는 저비용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여 국내 가장 많은 금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TOP 에의 참가를 고려중인 다른 주에 공개되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무부 재무관리 서비스 장관 (Commissioner) David A. Lebryk 은, "저희들은 뉴욕주와 협력하여 뉴욕주 및 국내 납세자들이 서비스 제공을 잘 받도록 함께 노력하여 계속적인 성공을 거두어 매우 기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District of Columbia 를 포함한 14 개 참여 주들을 위해 1 억 7,490 만 달러를 거둬들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orean

미국 상원의원 Kirsten Gillibrand 는, “뉴욕주 전역의 중산층 가정들은 그들의 예산내 신중히 생각하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부도 마찬가지이여야 합니다. 이 지원금의 회수는 저희들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뉴요커들을 위한 새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그들의 잘못에 의해서가 아닌 실직으로 고전하고 있는 뉴요커들이 계속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최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변인 Charles Rangel 은, “이 대승은 그 시스템내 부패와 사기를 잘 제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노력은 복리 후생 제도가 효과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뉴욕주가 훌륭한 통치와 정부의 투명성에 관한 한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모델이 될 수 있고 모델이 되어야 함에 대한 증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변인 Tom Reed 는, “저희들은 주지사가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직업을 잃고 고전하는 분들을 희생시키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기극을 근절시키고 적발하는 것을 격찬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낭비와 사기를 찾아내고 주 차원에서 주지사의 이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여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변인 Joe Crowley 는, “저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보호하고 비고용 보험 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분들께 주어지도록 열심히 일하는 Cuomo 주지사와 뉴욕주를 격찬합니다. 또한, 비고용 보험 신탁 자금의 강화는 수령인은 물론 저희 주내 고용주와 소기업들을 도와 줍니다. 비고용 보험 혜택은 뉴욕주의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가 아닌 수 천명의 실직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여, 저희들은 이 혜택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연방 정부의 비고용 보험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급능력이 있도록 확실히 하고 지불의 정확성을 개선하도록 하원 세입 위원회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채무자들은 그들의 채무를 거둬들이기 위한 수 차례 시도후 주 노동부에 의한 프로그램에 보고됩니다. 또한, 그들의 연방세 환급금을 압류하기 60 일 전 서면 통보를 받습니다.

회수된 5,120 만 달러는 뉴욕주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 비고용 보험 수혜를 받도록 비고용 보험 신탁 자금에 돌려졌습니다. 주 전역의 고용주들은 비고용 보험 신탁 자금에 기부합니다. 뉴욕주의 적극적인 사기 방지 노력은 고용주들의 기부금이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가 아닌 실직을 당한 뉴요커들에게만 쓰여지는 반면 이 부정행위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도와줍니다.

비고용 보험 사기에 대한 제보는 노동부 수신자 부담 사기 핫라인 (888) 598-2077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